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제210차 총회 승인(1998년)

미국장로교회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미국장로교회 회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미국장로교회 직원들 및 자원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미국장로교회 안수 직분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통합된 버전 – 참고문헌목록 및 모범사례

직업윤리강령

미국장로교회
제210차 총회 승인(1998년)

개발자
직업윤리강령 특별위원회

발행처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Copyright © 2004
저작권자: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

인쇄 미합중국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본 간행물의 일부나 전부를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정보검색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전자 기계적으로 전송하거나, 복사, 녹음,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단 잡지나 신문 논평에서 짧게 인용하는 것은 예외).

미국장로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대회는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 본 간행물의 본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 사본 제공
장로교회 배포관리부(PD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전화요청: 1-800-524-2612 (PDS)

PDS 주문번호: OGA-04-082

1998년 9월 1일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님들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210차 총회(1998)가 직업윤리강령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보고서의 제목은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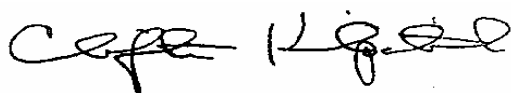
- A. 미국장로교회 회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 B. 미국장로교회 직원 및 자원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 C. 미국장로교회 안수 직분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총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회의 결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총회가 본 윤리기준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즉 노회와 대회가 본 기준을 하나의 모델로서 연구하고 승인하여 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것, 개체 교회가 본 기준을 하나의 모델로서 연구하고 승인하여 당회, 신입교인반, 성인 교육반, 각 위원회, 계약서에 적용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에 더하여, 총회는 본 윤리기준을 신학대학 교과 과정에 삽입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총회는 총회 산하 기관에서 사역하는 인사들의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A와 B를 승인했으며, 동 기준을 총회 기관의 인사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치리회 기관들과 신학대학에 동 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참고문헌목록과 모범사례를 포함한 전체 보고서를 출간하여 배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대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이 왜 필요한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서가 있고 *신앙고백서*와 *규례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07차 총회(1995)는 여러 다른 관점에서 비행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장로교단이 신앙 공동체와 개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계에 윤리강령의 모범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의 자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본인은 본 보고서의 연구와 윤리기준 실행이 각 당회, 노회, 대회에서,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진에서 풍요롭고 값진 경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평안을 반영하는 함께 하는 삶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Clifton Kirkpatrick (클리프톤 커크패트릭)

총회 서기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미국장로교회 회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나는 미국장로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며, 목회 사역에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이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과 목회 사역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확인하며, 윤리강령의 기준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나는 미국장로교 복음에 충실하고 회원기준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삶의 자세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공부, 기도, 자기성찰, 예배, 청지기, 섬김의 훈련을 실천한다
2.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
3. 내가 한 계약을 지키고 혼인서약의 이행을 충실히 한다
4.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존경심과 관심으로 대한다
5. 나는 다음 분야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즉, 나의 평생의 사역과 교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대한 헌신과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한 나의 헌신 사이에서, 그리고 영육, 지성과 감성의 쉼신에 대한 나의 욕구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6. 남용적, 중독적, 또는 착취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경우 이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구한다
7. 험담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8. 회개, 겸손,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의지에 응답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제2장

나는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에게 아무 것도 숨길 것이 없는, 미국장로교회 원칙 내에서 행동하고 처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옹기있게 증거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2. 언약 공동체 안의 신성한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본분을 지킨다
3. 책임부서의 권한과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분별력을 발휘한다
4. 신앙공동체 내에서 나의 증언과 나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한다
5. 신앙공동체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이나 충족 추구(성적 괴롭힘, 미국장로교회 정책에 의해 규정된 포함)를 하지 않는다
6.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그 장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누설하지 않는다
7. 나의 재능과 훈련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임무를 타인에게 위임한다
8. 자신이 실제로 도달한 것 이상으로 자격을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갈 공적을 밝히고 저작권을 준수한다
9. 나에게 위탁된 기금과 재산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며 그 용도를 충분히 밝힌다

10.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인다

제3장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사역과 선교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동역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미국장로교회의 선교활동과 정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공회의 일치를 위해 연대하여 동역한다.
2.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격려한다
3.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회원을 모집하고, 기존의 교회관계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취약 상황을 약점을 앎는다
4. 세계 정의, 동정,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협동하고 타종교 전통의 성직자들과 연대하여 동역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미국장로교회 직원과 사역지원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나는 미국장로교회와 연합기관, 치리회, 개체교회의 직원 또는 사역지원자로서 다음의 윤리강령 기준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나의 직장 목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자세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
2.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예의와 배려로 대한다
3. 나는 다음의 분야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즉 내 부서의 책임에 대해, 가족에 대한 헌신과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한 나의 헌신 사이에서, 그리고 영육, 지성과 감성의 쇄신에 대한 나의 욕구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4. 남용행위, 중독행위, 또는 착취 행동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경우 이를 극복하는 도움을 구한다
5. 험담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제2장

직장 목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의 자세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직장 내의 관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본분을 지킨다
2. 나의 부서의 권한과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 분별력을 발휘한다
3. 일의 능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한다
4. 직장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이나 충족 추구(성적 괴롭힘, 미국장로교회 정책에 의해 규정된 비행 포함)를 하지 않는다
5.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그 장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누설하지 않는다
6. 나의 재능과 훈련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임무를 타인에게 위임한다
7. 자신이 실제로 성취한 것 이상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으며, 논문, 음악, 발표회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을 준수한다
8. 치리회가 적절하게 설정한 사례금의 한계를 준수한다
9. 선임자 업적을 존중하며, 나의 부서에서 전근될 때 후임자의 사역에 지지하는 언행을 한다

10. 나에게 위탁된 기금과 재산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며 그 용도를 충분하게 밝힌다
11. 내 상급자의 적절한 지도를 수용한다
12. 평생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멘터(개인적인 지도자) 자문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13. 목회 동역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표시를 한다
14. 나와 다른 전통을 가진 신앙인들과 연합하여 동역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미국장로교회 안수 직분자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

나는 미국장로교회 안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며, 성경의 권위와 신앙고백서의 지도를 받으며, 안수서약을 지킬 것을 공언하고, 예수를 나의 삶과 목회 사역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다음의 윤리강령의 기준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나는 복음에 충실하고 목회 공직자로서 일치되는 방식으로 삶의 자세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공부, 기도, 자기성찰, 예배, 청지기, 섬김의 훈련을 실천한다
2.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
3. 내가 한 계약을 지키고 혼인서약의 이행을 충실히 한다
4.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존경심과 관심으로 대한다
5. 나는 다음의 분야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즉, 제직목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가족에 대한 헌신과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한 나의 헌신 사이에서, 그리고 영육, 지성과 감성의 쇄신에 대한 나의 욕구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6. 남용적, 중독적, 또는 착취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경우 이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구한다
7. 험담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8. 회개, 겸손,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의지에 응답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제2장

치리회나 목회 동역자들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목회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옹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2. 언약 공동체 안의 신성한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본분을 지킨다
3. 나의 직분과 직위의 권한과 특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분별력을 발휘한다
4. 목회 사역의 능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한다
5. 신앙공동체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이나 충족 추구(성적 괴롭힘, 미국장로교회 정책에 의해 규정된 비행 포함)를 하지 않는다
6.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그 장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누설하지 않는다

7. 나의 재능과 훈련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임무를 타인에게 위임한다
 8. 자신의 자격을 실제로 성취한 것 이상으로 과장하지 않으며, 설교, 논문, 음악, 발표회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을 준수한다
 9. 나의 교회 사역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채무 발생을 하지 않는다
 10. 나에게 위탁된 기금과 재산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며 그 용도를 충분히 밝힌다
 11. 사례금과 개인사업운영과 증여품에 관하여, 또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차용에 관하여, 당해 치리회가 설정한 제안을 준수한다
 12. 교단의 권징과 목회사역에 관한 내 상급자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들인다
 13. 평생교육에 참여하며, 멘터(개인 지도자) 자문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14. 선임자 업적을 존중하며, 나의 부서에서 전근될 때 후임자 사역에 지지하는 언행을 한다
- **15. 전임 목회지나 은퇴 전 사역 목회지에서 동역하는 것은 오로지 노회의 지시에 따른다
- **16. 전임 교회에 대한 목회사역은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만 제공하며, 타교회에서의 목회사역은 그곳 목사의 동의 하에서만 제공한다
- **17. 은퇴 목사로서 목회사역 참여에 관하여 나의 거주지역 노회의 목회위원회와 상담한다

제3장

나는 전체 교회의 목회 사역과 선교활동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동역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1. 미국장로교회의 선교와 정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공회의 일치를 위해 연대하여 동역한다
2. 목회 동역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표시를 한다
3.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회원을 모집하고, 기존의 교회관계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취약 상황을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4. 세계 정의, 동정,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협동하고 타종교 전통의 성직자들과 연대하여 동역한다

** 이 기준들은 오직 담임 목사들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담임목사 기능을 이행하는 평신도 파송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제4장 통합된 버전 – 참조문헌과 실례들*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의식

윤리강령 시행기준

미국장로교

안수직분자

나는 미국장로교회 안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며, 성경의 권위와 신앙고백서의 지도를 받고, 안수서약을 지킬 것을 공언하고, 예수를 나의 삶과 목회 사역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다음의 윤리강령의 기준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참고문헌

안수서약—G-14.0405b [목사들; G-14.0207 [장로들과 집사들]

“(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2)

당신은 구약과 신약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도 권위 있는 증언이요,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3)

당신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4)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장로들과 집사들은 직분을 수행하는데] 성경의 권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직책을 완수하며, 우리의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계속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5)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선교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6)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7)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8) 당신은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안수서약—G-14.0405b(9) [목사들]

“(9)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목사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안수서약—G-14.0207 [장로들과 집사들]:

“i.

(장로에게)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장로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시겠습니까?

“j.

(집사에게) 당신은 몸소 사랑을 가르치며, 관심을 일으키고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주의 백성들이 돕도록 인도하는 충성된 집사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나의 삶과 목회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서 20:26-28: “...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추가 참조: G-6.0101.

빌립보서 2:1-5: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추가 참조 베드로전서 1:15-16.

C-9:24 (1967년 신앙고백서): “새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삶, 그의 행하심과 말씀, 그의 유혹과의 투쟁, 그의 공를, 그의 노여움,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 들이심에서 찾는다.”

G-14.0103: “교회 목회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지도력의 목적과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목회 태도를 본받아서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

C-9.22-23 (1967년 신앙고백서): “새 삶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며, 그들이 누구이든지 받아들인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새 삶은 불신, 자만, 음욕, 공포의 갈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여전히 낙담케 하는 난관과 문제점들이 있고 투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숙해간다. 그는 자유와 용기를 갖고 살며, 좋은 날이 있고 불쾌한 날들이 있었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타인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다음의 윤리기준을 따르는데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고린도전서 10:31-11: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1:27: “...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야고보서 1:22: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C-5.167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대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사이에 적절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 교리와 생활은 대회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사 받아야 한다. 바로 잡을 수 있는 범법자는 장로들의 견책을 받은 후 바로 복권이 된다. 만일 바로 잡을 수 없을 경우에는, 참된 양치기가 지키는 주님의 양무리로부터 늑대를 쫓아내듯이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

G-2.0200: “이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예속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은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찬동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히 거절하는 안수받은 자를 교회는 충고하거나, 심지어 권징하기도 한다...”

제1장

나는 복음에 충실하고 목회 공직자로서 일치되는 방식으로 삶의 자세를 지켜갈 것이다

참고문헌

디/도서 2:7-8: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7: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C-4.03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 그러면 왜 당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릅니까?”

“답: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감사로 희생의 삶을 살 것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선한 양심으로 죄와 악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G-6.0106a: “교회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 곧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하나님은 각기 그들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타고났든 후천적이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소유한 것 외에도 특정 목회에 임직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 헌신적 제자직, 그리고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G-6.0202a: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특정 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그이나 그녀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전달하는 삶의 질과 관계에 책임을 진다...”

G-6.0303: “장로는 신앙과 헌신과 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G-6.0106)”

G-6.0401: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동정, 중언, 그리고 봉사직이다. 영적 성품, 정직한 명망, 모범적 생활, 형제자매의 사랑, 따뜻한 동심,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에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I.1. 공부, 기도, 자기성찰, 예배, 청지기, 섬김의 훈련을 실천한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도행전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로마서12:11-13: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에베소서6: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C-5.164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목사가 이 모든 일들을 보다 쉽게, 보다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한결같고 영적 독서에 힘쓰며 모든 일에서 항상 경계하며 생명의 순수함으로 자신의 빛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W-2.2004: “...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개인 예배시 성경 본문의 전체를 읽는 훈련을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

W-2.2007: “... 설교는 성경연구의 근면성과 분별성, 날마다 기도드리는 훈련, 백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과 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인 개인적 복종을 요청한다.”

W-5.1004: “크리스천의 생활은 은총으로 힘을 얻고 순종으로 표현되고 훈련으로 형성된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의 요소들을 주셨다.”

W-5.2007: “매일 개인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종의 훈련이다. 날마다 제자직에 도전은 날마다 예배로 양육받음을 요구한다. 매일 개인예배는 신앙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W-1.1006; W-1.3012; W-3.4000), 집에서와 식구들과(W-5.7000) 또는 사적으로 드릴 수 있다. 성서 읽기, 기도, 자기 헌신, 또 봉사하기 위한 결심 등은 매일 개인예배의 요소이다. 세례와 주의 성만찬은 그 성격상 집합적 참여이지만 이러한 성례전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일 개인예배에 중요하다. 매일 개인예배의 훈련의 한 국면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개인 헌신과 봉사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W-5.5004-5005: “봉헌은 언제나 크리스천의 표징과 제자직의 결단이 되어 왔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은사와 개인적 재능과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일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라고 분부하신 데 대한 충성된 응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의 기본적 표현이다. (W-1.3030; W-2.500)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스스로 단순성, 관용, 정직성, 후대, 동정심, 수용성, 그리고 이 지구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W-7.500)”

W-6.2006: “교회 교육의 기본 자료와 표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축하되는 주일낮 예배이다. 교회공동체의 모든 교인, 곧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권해야 한다...”

모범사례

- 일요일 아침에 장로가 10살짜리 딸아이를 교회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집에 돌아와서 일요일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신다.

- 목사가 교회 일에 파묻혀서 헤어지지 못하므로 매일 개인기도와 공부를 등한시 하게 된다.

- + 교회 주일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집사가 재할용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학생들을 선도한다.
- + 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기도 하느냐는 아들의 질문을 받은 장로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이유와 매일의 다양한 기도에 대해 설명한다.

I.2.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6: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에베소서 4:15: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골로새서 3:9-10: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G-1.0304: “진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 있으며,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지라’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결국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고 부당한 의견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등 애쓸 필요가 없다.”

모범사례

-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목사는 오직 진실의 일부만을 말하고 관련된 사실의 일부를 감추면서 자신의 행동에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 장로가 교회의 세금면제 번호를 자신의 개인 혜택을 위해 유용한다.
- + 교회전체 식사의 홍보에 틀린 날짜가 들어갔을 때 목사는 이를 교회 서기의 실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 + 집사가 철물점에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계산서의 실수를 발견할 때 주인에게 그 실수를 지적하여 정정하도록 한다.

I.3. 내가 한 계약을 지키고 혼인서약의 이행을 충실히 한다

참고문헌

창세기 21:22-34: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협약

출애굽기 20:14: “간음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20:17: “...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마태복음 19:4-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3:4: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C-6.1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목: 언약 이행]

“서약은 쉬운 말과 상식적인 말로 맹세하며 확고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서약은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어느 것이나 일단 서약하면 설령 인간 자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속박되며, 이단자나 이교인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C-6.1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독교인의 결혼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서 확립되었고 허가된 제도이다. 결혼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육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서로의 결함과 약점을 참으며, 곤란 시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정직과 근면함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가정에 물질을 제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 은사의 상속자들이 그들의 수명을 다하는 동안 함께 사는 것이다.” 추가 참조: *G-6.0106b*.

C-9.47 (1967년 신앙고백서): “... 오늘날 새로운 산하제한 방식과 감염치료법, 도시화 압력, 대중통신에서 성적상징 오용, 그리고 세계의 인구과잉은 성의 의미에 관한 인간의 끝없는 혼란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인간을 이러한 괴리감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도록 부름 받았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각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인성에 대한 기쁨과 존중을 가진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함께 하는 삶에 헌신하고, 서로 일생동안 민감한 관심으로 응답 하도록 하셨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각각의 개성을 양육하도록 은사를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이며, 함께 하는 삶의 온전한 의미로 남자와 여자를 인도하지 못할 때, 또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 혼란에 있는 사람들로에게 그리스도의 측은지심을 보이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의한 배척을 초래한다.

G-6.0106b: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행위를 실행한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받거나 취임해서는 안 된다.”

[수정안이 노회에 제기되어 본 조항의 문구를 수정할 것이다. 이 언급은 현재의 헌법 문구를 반영한다.]

모범사례

- 목사가 인간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늘 약속하여 목사직의 품위와 신뢰를 깎아 내리고, 자기 자신의 척도인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람을 평가하도록 무리를 이끈다.
- + 장로가 특정 위원회의 위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자 자신의 가정과 결혼의 유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결혼상담을 받기 시작한다.
- + 독신여성 목사가 상담중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목사 직무실 문에 유리창을 달 필요성에 대해 당회와 의논한다.

+ 한 스테반 사역위원회는 스테반목사 한 명이 수영복 차림의 교구민과 마주친 다음에 그를 심방을 하기로 결의했다.

I.4.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존경심과 관심으로 대한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3:9: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 것이다.”

레위기 19:15: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마태복음서 25:37-40: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마가복음서 12:28-31: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인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추가 참조: *마태복음서 19:19와 22:39, 로마서 13:9, 갈라디아서 5:14, 야고보서 2:8-9*

사도행전 10:34-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19-22: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C-7.232 (대요리문답):

“제122문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여섯 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여섯 계명의 요점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C-8.19-20 (*바르멘 신학 선언*):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도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서 20:25, 26)

“교회 내에 여러 직분이 있으나 어느 직분이 다른 것 위에 군림하도록 세우지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전체 회중이 위탁 받고 명령 받은 목회훈련을 하기 위함이다.”

C-9.44 (*1967년 신앙고백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우주적인 한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

랑 안에서 형제들간의 장벽을 극복하며, 인종과 에트닉 차이, 사실이거나 상상에 의한 다른 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차별을 무너뜨린다. 교회는 고용, 주택, 교육, 여가, 결혼, 가족, 교회, 그리고 정당활동과 같은 모든 생명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인종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그러한 핍박 받은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개체교회로서 또는 개인이나 그룹 차원에서 동료 인간을 제외하거나, 지배하거나 내려다 보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미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거역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고백한 신앙을 모욕하는 것이다.

C-9.46 (1967년 신앙고백서): "... 가난에 무관심한 교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교회, 특정 계급에만 문을 여는 교회, 또는 자선을 베풀고 보답을 기대하는 교회는 화해를 조소거리로 만들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G-6.0304: "그들에게 맡겨진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강화하고 육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 장로들의 임무이다. 목사와 함께 장로는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회 내에서의 사명과 세상에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고 갱신시키며,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모범사례

- 목사가 좋아하는 교인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친하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 목회적으로 돌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

- 당회가 별로 주목되지 교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보다 부유하고 활동적이며 권력이 있는 교인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 목사가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노회 회원들과 일부러 말을 붙이려고 노력한다.

+ 인사위원회에 있는 장로가 괴팍하게 행동하는 교회관리인과 매주 만나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그 이유는 이혼을 겪느라 힘들어 하는 그 관리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이다.

I.5.

나는 다음의 분야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즉, 제직목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가족에 대한 헌신과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한 나의 헌신 사이에서, 그리고 영육, 지성과 감성의 쇄신에 대한 나의 욕구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8-10: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0:12: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로마서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C-9.47 (1967년 신앙고백서): 상기의 I.3 참조.

모범사례

-

목사가 지방 교육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어 교회에 목회적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며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 집사가 주 1회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성서말씀, 기도, 가정생활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

목사가 짊어지는 책임의 균형에 대해 당회가 의견을 나누고 목사의 사역에 대해, 이런 일들이 목사의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 그 장로들은 목회사역을 분담하기로 서약하고 자신들의 안수서약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그들은 제직 목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안식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교회 서기가 자신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지방 신학교 평생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회행정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당회의 허가를 요청한다.

I.6.

남용적, 중독적, 또는 착취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경우 이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구한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5: “도둑질하지 못한다.”

잠언 20:1: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잠언 23:29-35: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 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쏘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뿔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16-17: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갈라디아서 5:13-15: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C-7.251-.252 (대요리문답).

“제141문 제8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행위에 있어서 진실함과 성실함과 공의로움입니다. 각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 주는 것; 정당한 소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배상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거나 빌려주는 것; 세속적 재물에 관하여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감정을 절제한 것;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하며 우리의 신분에 적합한 것들을 얻거나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구하는 것; 합법적인 직업과 근면한 직장생활; 검소함; 불필요한 소송, 보증, 또는 계약을 피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전하며 늘이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입니다.

“제142문 제8계명에 금해져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에 금해져 있는 죄는 요구된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외에도 도적, 강도, 납치, 장물수수; 사기거래; 속임수 저울질과 자 재기, 지계표를 옮기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하는 일에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악한 소송, 부당한 봉쇄와 추방; 가격인상을 위한 상품매점, 부당한 가격 매김, 부당하고 최악된 여타의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스스로 치부하는 일; 탐욕, 세속적인 물건에 지나치게 애착하는 것; 세속적인 물건을 얻어 보유하고, 사용하는데 과민하게 염려하는 것. 남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일; 게으름, 방탕, 낭비적 노름; 그리고 여타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외형적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일에 자신을 속이는 일 등입니다.

G-6.0106a. “그들의 생활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 치리회의 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교: *자유와 물질 남용. 제205차 총회 채택(1993년), 2f, (1993년 의사록 제1부 p. 762):*

“물질 남용조사는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외로움과 소외의 증독을 의도하지 않으시고 온전성을 의도하시며, 가족과 친지, 교회와 공동체 간의 건강한 상호의존을 의도하신다.

“(2) 인격을 저해하는 물질의 사용은 건강, 창조성, 합리성, 양심, 그리고 자존심과 타인존중에 대해 미치는 효과에 의해 판정되어야 한다.

“(3) 개혁신앙은 신앙인들을 개인적으로, 가족단위로, 개체교회로, 교단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물질의존에 대한 책임과 대중적인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모범사례

- *미숙한 비서가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척척 알아서 처리하지 못할 때마다 목사가 고함을 질러댄다.*

- *장로가 밤에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

+ *목사가 교회 직원의 성장과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감독자 기술을 계발하는 교육과목을 수강한다.*

+

당회의 인사위원회가 음악목사의 술중독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인사위원들, 해당 목사가족, 성가대가 합심하여 참여하도록 주선한다.

I.7. 험담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6: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

레위기 19:16: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잠언 20:19: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2:16-17: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

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4:11-12: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서로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베드로전서 2:1: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사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C-7.254-.255 (대요리문답). 추가 참조: *C-4.11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44문 제9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진실을 위해 앞장 서고, 재판이나 정의에 관한 일과 여타의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오직 진실만을 성실하고, 자유롭게, 분명하고, 충분하게 말하는 일;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존중하는 일; 이웃의 명예를 사랑해 주고, 바라며, 즐거워하는 일;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일; 이웃의 재능과 바른 몸가짐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일;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 주되 나쁜 소문은 받아 주지 않는 일;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들을 면책하는 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방어하는 일; 합당한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평이 좋은 일은 무엇이나 힘써 실행하는 일 등입니다.

“제145문 제9계명에 금지되어 있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 금지되어 있는 죄들은 특별히 공적인 재판 사건에서 진실을 왜곡시키고,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일로서, ... 허위를 말하고, 거짓말하며, 비방하고, 헐뜯으며, 훼방하고 고자질하며, 수군거리고, 냉소하며, 욕설을 하는 것;...”

G-1.0304: 상기의 I.2 참조.

모범사례

-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 관한 소문을 목사가 그대로 전한다.
 - 교단의 공급이 유용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장로가 끊임없이 퍼뜨린다.
 - 교인이 목사에게 특정한 결단을 내리라고 협박하고 욕박지르고 욕설을 퍼붓는다.
 - 목사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어느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다.
- +
- 교회건물 개조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생활에 관해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자 최근에 안수 받은 장로 한 분이 이를 불식시키려고 시도한다.

I.8. 회개, 겸손,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의지에 응답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참고문헌

시편 51: “하나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하 참조.

잠언 28:13: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다.”

마태복음서 18:21-22: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빌립보서 2:3: “무슨 일이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십시오.” 추가 참조: *잠언 22:4*, *베드로전서 5:5-6*

야고보서 1:21: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16: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낮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요한1서 1:8-9: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C-4.088-.08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추가 참조: *C-4.090-.091*.

“제88문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제89문 옛 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 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C-7.254-.255 (대요리문답): 상기의 I.7. 참조.

C-6.08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하여야 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림으로 해서 그는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피해자들은 그와 다시 화목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여야 한다.

C-9.21 (1967년 신앙고백서):

예수의 중보 사역은 인류 최대의 고비였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후 부활은 개인적으로 위기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를 믿었을 때 인간의 희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성령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고 신앙, 회개,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움직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시작하게 한 것이다.”

모범사례

- 목사가 자신의 목회사역 방식과 목회관계 해소 가능성에 관한 노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을 때마다 고소하겠다고 위협한다.
- 수탁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재무관리 서기의 탓으로 돌린다.

- + 목사가 교회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피드백 그룹을 만들어 자신의 맹점을 보완한다.
- + 교회 회원이 자신의 불친절한 언어, 잘못 말한 것, 혹은 후속업무 처리를 못한 것을 사과한다.

제2장

치리회나 목회 동역자들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목회 사역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여호수아기 7: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시편 69:5: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요한1서 1:5-7: “...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립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추가 참조: *에베소서 5:8-12*.

G-1.0303: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직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토록 하신다; 이것은 모든 제직원들에게나 전체 교회에 의무로서 주어진 것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규율을 존행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II.1.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레위기 19:15: 상기 I.4. 참조.

사무엘기하 12: 밧세바에 관한 일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제7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6: “예레미아의 성전 설교.” 특별히 14-15절에 주목: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추가 참조 *예레미야서 28: ‘예레미야와 나무 멩에와 쇠 멩에’* 이야기.

사도행전 10:34: 상기 I.4. 참조. 추가 참조: *야고보서 2:8-9*.

사도행전 제 24-26 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소 당하고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다. 특별히 제 26장 22-23절에 주목: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

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3-18: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C-7.269 (대요리문답):

“제159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답: 말씀의 사역에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되 열심히(diligently),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고, 알아듣기 쉽게 (plainly) 해야 하며, 인간의 지혜로 유도된 말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권한을 실증하며, 충성스럽게(faithfully)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알립니다...”

G-6.0304: “그들에게 맡겨진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강화하고 육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 장로들의 임무이다. ... 장로는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 사역이 없는 곳에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G-6.0402: “집사들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먼저 궁핍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그런 임무 이외에도 시시로 당회가 위임한 다른 임무들을 돌보아야 한다.”

G-14.0801c: “노회가 당회나 여타 책임진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교회에서의 선교전략에 그것이 요구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지시사항을 마련한 다음에, 노회는 아래 (1) - (6)에 기술된 다음 기능의 어느 것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평신도 파송 목회자에 권한을 줄 수 있다.”

모범사례

- 특정 이슈가 설교 내용과 문맥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를 언급하지 못한다. 교인 한 사람을 기본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 목사가 지방의 공해문제에 대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하지 못한다. 교회가 지리적으로, 회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작은 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부유한 지역의 백인교회에서 인종차별과 빈곤문제를 반갑게 대하지 않을 것을 짐작하면서도 집사가 그러한 문제를 감히 제시한다.

+ 장로가 자신의 상급자에게 인종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개인을 변호해준다.

II.2.언약 공동체 안의 신성한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본분을 지킨다.

참고문헌

창세기/38: 유다와 다말.

창세기/39: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시편 55:20: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

마태복음서 26:48-49: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C-4.105.

“제105문 제6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내 이웃을 학대하거나 중용하거나 해 끼치거나 죽이지 않으며, 이러한 것은 행위로서 안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말이나 제스처로도 하지 않으며 내가 직접 하거나 남을 통해서도 하지 않으며 복수 원한을 완전히 버린다; 나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직권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살인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입니다.

G-3.0101b: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약의 책임을 지우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면서도 그들의 불성실 때문에 백성을 심판하셨다.”

비교: 성적비행의 정책과 절차. 제205차 총회 채택(1993년)(1993년 의사록 제1부 p. 572), 제2장 B.2 항, 행동규범:

“성적비행은 남용적, 착취적,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신뢰관계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이는 기독교 윤리원칙을 위반한 권한의 남용이다. 만일 교구민, 학생, 의뢰인, 혹은 직원이 성적내용으로 관계를 유도했다 하더라도 목회자, 카운슬러, 제직자, 또는 감독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한 성적관계를 금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범사례

- 독신의 목사가 교회 안의 독신 교인 한 명과 성관계를 맺는다.

- 목사가 목회돌봄의 주요한 직무로서 카운슬링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일상적인 감독업무를 관장하지 못한다.

-

남자 과장이 직원회의를 시작할 때 짧은 기도시간을 끝낸 후, 상스러운 농담을 섞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남녀)직원들은 그의 행동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과장은 직원들의 웃음을 멋대로 해석하고 상스러운 농담을 그치지 않는다.

+ 같은 교회 내의 교인과 사귀기를 원하는 독신 목사가 자신의 욕망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영적 지도와 상담을 받는다.

+ 교회의 중고교생반을 이끄는 디렉터가 그룹여행 시에 적절한 수의 남녀 어른 보호자들이 대동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II.3.나의 직분과 직위의 권한과 특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분별력을 발휘한다

참고문헌

사무엘기하 11장과 12장: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마태복음서 20:25-28: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마태복음서 23:8, 10-12: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 . .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5:1-3: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C-5.157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교회 목사의 권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 목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한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한에 대해 격렬한 다툼을 벌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에 너무나 반대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지배권 행사를 금지하셨고 겸손의 미를 높이 평가하셨다.(눅 22:24와 이후 구절들; 마18:3와 이후 구절; 20:25와 이후 구절들.) 또 하나의 권능이 있으니 이는 수수하고 절대적이며 의로운 권능이라 부른다. 이 권능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종속되며 그는 만유의 주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마태복음서 28:18), 그리고 다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 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 1:18); 또,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달을 사람이 없고 달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다’(계 3:7).”

C-9.40 (1967년 신앙고백서): “. . . 여러 층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며, 그 중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장로교회 정치는 사역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단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교회적이나 세상적인 권한이나 공명심에 의한 이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추구한다.”

G-1.0307: “교회의 권한은 전체 교회가 하든지, 혹은 선택하여 세운 대표에 의해 하든지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어떤 치리회라도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교회회의와 협의회가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G-6.0102: “교회에서 교인이 맡은 하나의 책임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수받은 교회의 제직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런 직책이 존재한다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의 전체 목회에 참여하는 헌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안수 직분은 오로지 기능상으로만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

G-11.0403b: “그 목회는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도우며, 타인의 목회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G-14.0405b(5), G-14.0207e: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W-7.4002: “화해: 평화와 정의 :

“정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공평하고 정직한 거래관계를 갖게 하려고, 또 제 권리를 주장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하여 설정해 놓으신 질서이다, 정의 실현의 성경적 비전은 다음을 요청한다:

- “a. 개인사업에서나 공공사업에 있어서 정직한 거래를 하는 일,
- “b. 공공의 선을 위한 힘의 행사를 하는 일,
- “c. 그들이 부정당해 온 존엄성, 자유, 그리고 존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일,
- “d. 공평한 법률과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하는 일,
- “e. 그 땅에 나그네된 자들을 환영하는 일,
- “f.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에 생긴 괴리를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일,
- “g.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서 증언하는 일,
- “h.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또는 전세계에서, 개인과 그룹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는 과오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일을 한다.”

모범사례

- 과장이 직원에게 임무를 맡길 때 작업 소요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며, 사전 경고 없이 일정표를 변경하거나, 책임 부서에 속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한다.
- +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와 당회를 진행하면서 “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주목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늘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 신임 재산관리 위원장이 책임부서에 다소 서툰 것을 주지한 목사가 특별 지도자 훈련코스를 마련하여 위원장이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
- + 목사가 당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외부 전문인을 초청하여 당회의 대규모 유증 관리를 지원 하게 한다.

II.4.목회 사역의 능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한다

참고문헌

마태복음서 6: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추가 참조: 누가복음서 16:13.

G-6.0202a: “. .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특정 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그이나 그녀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전달하는 삶의 자질과 관계에 책임을 진다.”

모범사례

- 장로가 자신의 친척 보험대리인을 추천하고 가격이 더 비싼 그 보험프로그램을 사도록 권장한다.
- 자동차 기술공으로 일하는 교회의 교인에게 목사가 자동차 수리를 무료로 제공받으려고 한다.

- 목사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교회와 공동으로 열고 사용하며, 이를 심의할 권한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 + 목사는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아내(또는 남편)이 교회나 교인에게 사업청탁을 하지 못하게 한다.
- + 목회위원회에 속한 목사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목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자리를 피한다.

II.5.

직장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이나 충족 추구(성적 괴롭힘, 미국장로교회 정책에 의해 규정된 비행 포함)를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사무엘기하 11: 다위과 밧세바 이야기.

시편 55:20: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욱되게 하는구나”

C-5.157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교회 목사의 권한.” 상기의 II.3. 참조.

C-9.47 (1967년 신앙고백서): 상기의 I.3 참조.

D-10.0401:

“b. 다른 사람의 성희롱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1) 18세 이하나 동등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어느 개인; 또는

“(2) 그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책이나 직권 남용을 포함할 때의 어느 개인.”

비교: 상기 언급(II.2)의 성적비행의 정책과 절차 참조

모범사례

- 목사가 교구민에게 돈을 빌리고 무상증여를 요구한다, 즉 자동차 대출, 스포츠 행사 입장권, 또는 휴가용 별장 사용을 부탁한다.
-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청빙을 받기 위해 그 교회의 목사청빙위원회 위원장과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과의 사업 연관을 이용하여 로비활동을 벌인다.
- + 자비량 선교사가 직장의 사업을 위해 같은 교회의 교인에게 거래청탁을 하는 것을 피한다.
- + 교회의 중고교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장로가 문제가정 출신의 한 틴에이저로부터의 성적접근을 거부하고 그 아이가 카운슬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II.6.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그 장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누설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잠언 11:13: “협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잠언 25:9-10: “이웃과 다룰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C-7.254-255 (대요리문답): 상기의 1.7. 참조.

비교: 성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결의안 제 199차 총회 채택(1987년)

“... 미국장로교 제 199차 총회 (1987년):

“1.

성직자가 카운슬링 중에 신뢰관계에서 고백받은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성직자의 영적/직업적인 의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역사적 입장을 재확인한다. 법원의 증인 소환은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D-9.0101: “소문이나 협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장로교 회원은 혐의사실에 대한 분명한 구술서와 진술서를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결백입증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모범사례

- 목사가 교인의 사생활을 얇은 베일로 싸서 설교의 실례로 사용한다.
- 장로가 공유하는 사적인 문제들을 당회의 기도시간 중에 교인에게 알린다.
- + 노회의 요청으로 당회는 목사의 공금유용건에 관해 노회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비밀유지를 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학대에 관한 것이고 자살의 위험이 있음을 알 때 목사가 비밀유지의 약속을 깬다.

II.7.나의 재능과 훈련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임무를 타인에게 위임한다

참고문헌

로마서 12:3-8: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저마다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7, 11-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참조: 고린도전서 3:6-7.

C-5.151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안수. 회중기도와 장로의 안수로서 직분을 임명받은 자들아.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으므로 벌하겠다(렘 제 23장). 우리는 거짓 목사들을 저주한다. 그들은 목사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G-6.0105: “남녀는 다같이 교회의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선물에 의해 남녀가 특별한 목회 형태를 수행하도록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는 다른 부름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의 판단과 필요에 민감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름받은 목회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목회에 부름을 받았을 경우, 그들과 교회는 그들과 교회의 선교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W-1.1005a: “... 성령은 계약의 새 공동체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질서를 유지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은 각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목회사역에 임하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W-6.3003-3004: “신앙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재능과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그룹을 상대로 목회상담의 특별한 목회를 하도록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은 전문가인 목사나 전문 자격증과 신앙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소개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요법을 마련하게 한다.”

모범사례

- 목사가 교인들에게 재무 투자 계획과 은퇴 설계에 대해 조언한다.
- 상담에서 요구되는 범위가 자신의 능력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상담을 계속한다.
- + 목사가 교인의 유산 집행자 역할을 고사한다.
- + 교회 유치부 교장이 심리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유아 부모를 어린이 심리학자에게 상담받도록 소개한다.

II.8.

자신의 자격을 실제로 성취한 것 이상으로 과장하지 않으며, 설교, 논문, 음악, 발표회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을 준수한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5: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잠언 20:17: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로마서 13: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3: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C-7.251-252 (대요리문답): 상기의 I.6. 참조. 추가 참조: *C-4.1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모범사례

- 다른 사람이 쓴 설교책과 기도집을 사서 그 내용을 발췌하여 설교와 기도에 사용하면서 정당한 출처를 언급하지 않는다.

- 성가대 지휘자가 다른 성가대 용으로 만든 악보를 복사한다.
-
- 성적비행으로 노회의 책벌을 받은 목사가 새 목사 청빙을 추구하면서 개인정보서에서 필수적인 (성적비행이 없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페이지를 삭제한다.
- 치료사로 일하는 교인이 자신의 직업이력서에 거짓을 기입하였음이 발각된다.
- +
- 교회 교육자로 봉사하는 장로가 저작권이 있는 세대간의 분쟁에 관한 자료와 수업안을 사용하면서 정당한 출처를 언급한다.

II.9.나의 교회 사역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채무 발생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5: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잠언 22:7: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빛지면 빛쟁이의 종이 된다.”

마태복음서 6:24, 누가복음서 16:13: 상기 II.4. 참조.

누가복음서 12:29-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로마서 13: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13:5: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C-7.251-.252 (대요리문답): 상기의 I.6. 참조.

모범사례

- 신학교 학비 빚이 많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불이행 한 목사가 후에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당국의 추궁을 당해 창피를 당한다.
-
- 목사가 가구점을 운영하는 교회의 교인에게 비싼 가구를 구입한다. 목사가 다른 교회로 청빙되어 이사가면서 빚을 갚지 않자 가게 주인이 새 노회를 통해서 목사의 채무액을 받아내려고 한다.
- +
- 노회의 목회위원회는 목회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로서 재무관리 카운슬링과 채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큰 빚을 지고 있는 목사가 재정관리 상담을 받는다.

II.10. 나에게 위탁된 기금과 재산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며 그 용도를 충분히 밝힌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5: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누가복음서 16:1-3, 10-1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말해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뭇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고린도전서 4:1-2: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C-7.251-.252 (*대요리문답*): 상기의 I.6. 참조.

모범사례

- *교회의 한 부유한 교인이 지난 5년간 교회의 비상기금 용도로 수천달러씩 수시로 헌금한 것을 목사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챙겨온 사실을 알아낸다.*
- *교회 재무 담당의 장로가 교회기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 공과금을 지불한다.*
- + *연말 정산시 목사가 자신의 연수비용이 과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은 금액을 교회에 반납한다.*
- + *목회자의 자유재량 지출 기금에 대해 재무위원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목사가 회계제도를 시작한다.*

II.11.

사례금과 개인사업운영과 증여품에 관하여, 또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차용에 관하여, 당해 치리회가 설정한 제안을 준수한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3:8: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전도서 7:7: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사도행전 4:32-5:11: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교회에 가져온 이야기 참조.

요한1서 2:15-16: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C-7.251 (*대요리문답*): 상기의 I.6. 참조.

G-10.0102n: [“당회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교회 프로그램의 관리를 마련하는 일, 즉... 인사 정책, 매년 모든 고용인들을 포함한 교회 전직원에 대한 보수의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G-11.0103f: [노회는 ...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공평한 보수, 인사정책, 공정한 고용정책 분야에 있어서 ... 지도와 재원을 제공하는 일;”

...

G-12.0102f: [“대회는 ...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공평한 보수, 인사정책, 공정고용 실행 등에 관하여 회원노회들과 협의하는 일;”

G-13.0201i: [... 총회중앙협의회는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공정한 보수, 인사정책, 공정고용 실행과 관련하여 대회와 자문하는 일;”

모범사례

-

목사가 교회의 부유한 교인이나 친구들로부터 값 비싼 선물을 증여를 받고 그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포츠 행사의 시즌 티켓이나 지역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받거나, 무료로 유람여행을 가거나, 휴가용 별장이나 신차를 사용하거나, 자녀의 사립학교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이다.

+

목사가 겨울철에 따뜻한 곳으로 휴가 여행을 가기 위해 교인으로부터 마일리지 무료 항공 티켓 두 장을 받았으며, 당회와 목사의 부재 시간에 대해 협상하면서 그가 티켓을 증여받은 사실을 공개한다.

+

특정 프로그램 지도자로서 수련을 받은 자격증을 가진 장로교 직원이 다른 노회에 속한 개체교회를 지원해 달라는 청빙을 받고 그는, 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인사위원회와 의논한다.

+

자비량 목사는 새 노회의 목회위원회에 자신의 일반(비종교) 직장일에 대해 협의하고 당회에도 상세하게 알린다. 자신이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직장에서 얼마의 보수를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알게 한다.

II.12. 교단의 권징과 목회사역에 관한 내 상급자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들인다

참고문헌

여호수아기 7: 아간의 죄. 특히 19-20장에 주목: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19-20: “...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2-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C-5.165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권징**. 교회의 권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대교회에서는 권징의 방식으로 추방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교회 심판을 할 때 교부들이 권징을 사용하였다. 오늘날은 시간적인 상황, 전체적인 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범죄자를 회개케 하여 바로 잡아 주기 위해 권징을 규제하는 권한이 목사의 손에 맡겨져 있다. 권징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강화 목적으로 시행되고, 억압이나 다툼이 없으며, 진지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을 준행해야 한다. 사도들이 증언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10:8). 주님은 주님의 발에서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힐까 걱정하시며 가라지를 뽑는 것을 금하셨다. (마태복음서 13장 29절과 그 이하).”

C-5.167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다음의 윤리기준을 따르는데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상기 전문 참조.

C-6.10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홀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이 신앙문제 혹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율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 그러한 양심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참된 양심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본다.” 추가 참조: *G-1.0301*.

G-1.0302: “상기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각 교회나 연합체나 개체교회 협의회는 그 교회의 가입 규정과 목사와 교인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의 이런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 가입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며,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G-1.0305: “. . .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 하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성품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개 교인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상기의 I.1.3.에서 *G-1.0307* 추가 참조.

G-2.0200: “다음의 윤리기준을 따르는데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상기 전문 참조.

G-6.0108:

“a.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교회의 순결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정치형태에 명시된 개척교회의 신앙과 정책의 근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본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b.

그렇지만, 미국장로교의 직분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특정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그녀의 양심은 이 장로교단의 직책을 추구하거나 직책을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는 한, 교회의 표준에 해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개척교회 신앙과 정책의 근본으로부터 이탈했는지의 여부는 먼저 관계되는 개인의 결단에 의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의 책임은 그/그녀가 섬기는 교회의 치리회가 져야 한다. (*G-1.0301*; *G-1.0302*)”

G-14.0405b(3) (5), *G-14.0207c*, *e*: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D-1.0101: “교회 권징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 또 범법자에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비판하여 선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행사이다. 그러므로 권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인됨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살찌우게 함으로써 교회

의 순결성을 보존하는 일; 교인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잘못을 고치거나 저질르지 않는 일; 불화와 분리를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절차의 결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모든 점에서 교인들은 절차상의 안전조항 및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조례의 의도이다.”

모범사례

- 장로가 자신의 의견이 당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결정의 반복을 요구하며 사퇴하겠다고 위협한다.
- 목회위원회의 3년차 감사 방문에서 목사가 목회자의 자유재량 지출기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지출한 것을 발견한다. 목사는 목회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어디까지나 목사와 당회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 + 목회위원회가 3년차 방문한 당회의 공동회의에서 목사가 자리를 비울 것을 거부한다. 그는, 장로들이 목사 면전에 서 말하기 거북한 말을 그가 없을 때 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치 없다고 간주한다.
- + 교인의 손주에게 세례를 사적으로 거행해주시기 요청받은 목사가 『신앙고백서』를 인용하여, 세례가 공중예배의 문맥에서 거행되어야 할 계약 공동체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교인이 목사에게, 세례가 거행된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상당한 사례금을 지불할 것을 제의하는데도 그 목사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II.13. 평생교육에 참여하며, 멘터(개인 지도자) 자문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참고문헌

에스라기 7:10: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추가 참조 *느헤미야* 8:13.

시편 32:8-9: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조연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잠언 9:9: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골로새서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니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디도서 1:9: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다시 나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관계를 주목하십시오 – *디모데전서*.

4: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6:20-21: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10-11; 14-17: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 . .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C-9.49 (1967년 신앙고백서): “. . . 설교, 가르침, 개인적인 증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율된 자세로 성경과 세상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G-10.0102k: [제목: “당회의 책임과 권한]: “당회원의 교육과 상호 성장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일.”

G-11.0103f:

“노회는 그 지역구에 있는 교회의 선교와 정치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 “노회 회원 교회의 지도자 개발, 교회 제직 훈련, . . . 분야에 있어 지도와 재원을 제공하는 일, . . .”

G-14.0305j(2): 후보 단계가 끝나면 안수받을 각 후보생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입증한다: . . . 과도기를 위한 청빙 노회의 계획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증거와 지속적인 연구와 성장을 위한 계획의 증거를 제시. . . .”

G-14.0801d: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봉사하는 교회의 당회장을 통해서나 목회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감독하에서 사역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한 사람을 조언자와 감독자로서 선임해야 한다.”

비교: 제 204차 총회 회의록 (1992년), ACC Opinion L, 문단 21.257–258, p. 323.

“청원서 89-6 (Request 89-6)는, 이전에 안수 받았으며 후에 활동 제직원으로 재 선출된 장로와 집사들에게 새 사역 임무에 대한 재훈련과 재시험을 당회가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당회는 규례서, G-10.0102j에 따라 그러한 훈련과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동 규례서는 당회 교인들의 교육과 상호 성장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당회의 책임과 권한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모범사례

- 목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지원비를 개인 서재의 장서를 늘이는데 사용한다.
- 목사가 평생교육 자원을 휴가 비용에 유용한다.
- + 장로가 노회 후원의 영적수양회에 참여한다.
- + 노회가 목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노회에 들어오는 각 목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II.14. 선임자 업적을 존중하며, 나의 부서에서 전근될 때 후임자 사역을 지지하는 언행을 한다

참고문헌

신명기 34: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열왕기하 2:1–14: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리다

로마서 13: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3-9: “... 여러분은 아직도 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욕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삯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C-5.155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신약에서 목사의 성격: 신약에서 목사나 기독교회가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전: 4:1). 그러므로 사도들은 우리 목회자를 목회자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을 *υπηρετας*, 즉 노릇하는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배의 타수에만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삶을 맡기고 그의 명령을 받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합니다. 교회의 모든 목사들은 자신들의 자유 선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서 명령받은 것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목사들은 모든 목회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G-14.0405b(5), (7), G-14.0207e, g: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모범사례

- 목사가 전임자의 실수를 터놓고 지적하며, 전임자를 형편없는 목사요, 관리자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 + 신임 목사가 전임 목사와 점심을 나누면서 서로 합의하기를, 교인가족이 전임 목사에게 혼례식이나 장례식을 부탁할 경우에 신임 목사가 집례하고 전임목사가 조력한다는 것입니다.
- + 교회가 창립기념식에서 전임자의 업적을 기립니다.
- + 교인들이 전임목사에게 와서 새 목사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전임목사는 새 목사에 대해 교인이 한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II.15. 전임 목회지나 은퇴 전 사역 목회지에서 동역하는 것은 오로지 노회의 지시에 따른다**

참고문헌

고린도전서 3:3-9: 상기 II.14. 참조.

C-5.155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상기 II.14. 참조.

G-11.0502. [제목: 목회위원회]

“f.

이 위원회는 교회에 목사가 없을 경우 노회 지정목사,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 그리고 임시지정목사에 관하여

당회와 상의해야 하며 목사들, 평신도 파송 목회자와 빈 강단을 돕도록 노회가 훈련시키고 파송한 자격 있는 평신도들의 명단을 마련해야 한다. 당회가 G-14.0513b와 c에 따라서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를 초청할 경우 목회위원회를 통한 노회의 찬동이 요구된다.

“i.

이 위원회는 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기구 역할을 하되, 특히 목사들과 교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

G-14.0405b(7), G-14.0207g: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G-14.0605: “어느 담임목사나 부목사가 은퇴하고 교회가 존경과 사랑에 감동되어 영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정기공동회에서 보수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나 목회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이 그이나 그녀를 명예(원로)목사로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런 관계가 지혜로운 것인지의 여부를 노회 목회위원회와 자문을 한 후에만 취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노회의 승인에 달렸고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관계의 정식 해소나 그 후 어느 때든지 효력이 발생한다.

모범사례

-
어느 대도시 내의 한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목사가 이전에 시무하던 교인들에게 새로 시무하는 교회로 교적을 바꾸도록 부추김으로써 이전 관할권의 목회를 약화시킨다.

-
목사가 이전 관할권에서 7백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전 교회의 장로들이 당회 문제들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 전화를 한다.

+
은퇴 예정일이 불과 6개월 남은 목사가 자신의 후임자로서 임시목사를 당회에 천거하기를 고사하면서 어디까지나 목회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한다.

+
인근 병원의 원목으로 부임 1주일 앞둔 목사가, 교회목사로서의 그의 마지막 교회설교에서 교인들에게 이임 목사에 관한 장로교회 윤리정책을 읽어준다. 이임하는 그 목사는 교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교인에 대한 그의 연락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II.16.

전임 교회에 대한 목회사역은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만 제공하며, 타교회에서의 목회사역은 그 곳 목사의 동의 하에서만 제공한다

참고문헌

고린도전서 3:3-9: 상기 II.14. 참조.

C-5.155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상기 II.14. 참조.

G-14.0405b(5):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G-14.0606: “전임 담임목사, 부목사들과 보조목사들은 당회장의 초청에 의해서만 또는 당회장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회 서기의 초청에 의해서만 개체교회 교인을 위한 예식이나 교회 시설 안에서 행하는 예식에서 집례를 할 수 있다.”

모범사례

- 장로교회 중고교부 목회사역을 맡았던 목사가 같은 지역 내에서 장로교 청소년부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교단의 교회로 떠난다.

- 전임목사가 후임 목사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참석 초청도 받지 않은 채 교인의 손녀딸을 위한 결혼식을 주례하기로 동의한다.

+ 소읍 교회의 목사가 도시에서 있으면서, 노회위원회에서 안면을 튼 장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한다. 목사는 목회자로서 그 장로에게 병문안 하기 전에 장로의 담임목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다.

+ 전임목사가 친한 친구였으며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그의 장례식 집례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후임목사에게 먼저 연락한다.

**II.17. 은퇴목사로서 목회사역 참여에 관하여 나의 거주지역 노회의 목회위원회와 상담한다

참고문헌

고린도전서 3:19-23: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G-11.0412b: 명예 은퇴 목사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노회에 그들의 회원권을 이명하도록 격려하며 그 노회가 그들을 받아들일도록 격려한다. 그들이 노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장로를 추가 선발하여 노회에서 목사와 평신도 수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야 한다. (G-11.0101b) 노회는 명예 은퇴목사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창조적이며 의미있는 방면에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 봉사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지교회나 노회에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노회는 양육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G-14.0606: 상기 II.16. 참조.

모범사례

- 은퇴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새 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그 부목사와 친해졌다. 은퇴목사는 목회위원회와 당회가 그 부목사의 이임조건을 협상할 때 그 부목사의 지지자로 참여하게 된다.

- 은퇴목사가 목회위원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총체적 접근방식의 건강 클리닉의 “영적조언자로 들어간다.

+ 새 노회 관할권으로 이사한 명예목사가 위임 목사와 상의 없이 목회위원회와 접촉하여 설교할 뜻을 제의하고 당회를 위한 사역에 참여할 뜻을 나타낸다.

+ 은퇴목사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노회에 위치한 양노원의 원목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노회 허가를 요청한다.

제3장

나는 전체 교회의 목회 사역과 선교활동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동역할 것이다.

참고문헌

갈라디아서 6:9-10: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C-5.127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교회의 여러 부분 또는 형태. 교회는 다른 부분 또는 형태로 나누인다.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거나 그 자체로서 동강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교회 안의 교인들의 다양성에 의해 특징되기 때문이다.”

G-4.0200-0203: “교회의 일치는 주께서 주신 은총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믿음의 영역을 넓히기 원하는 믿는 자들의 교제이며, 그러나 결코 기독교 공동체 유익을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에베소서* 4:4-6)

“각각의 개성과 재능과 이해의 다양성을 다 하나로 단합시켜서 가시적 동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일치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다. 또한 그것은 일치가 성취된 한 방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각기 다른 교파로 갈라진 것이 이 일치성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러한 나누임은 교회와 세상에게 그 일치를 모호하게 한다. 미국 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와의 그 역사적 연속성을 긍정하면서 그 모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 하나의 보편적 교회의 모든 지교회들과의 교제와 유대를 추구하고 도모하려고 한다. (G-15.0000)”

G-15.0101: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교단 및 세속 그룹들과의 대화, 협력과 행동을 같이할 기회를 개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을 다짐한다:

III.1. 미국장로교회의 선교활동과 정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공회의 일치를 위해 연대하여 동역한다.

참고문헌

에베소서 4:4-6: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C-5.126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분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전체 양떼의 오직 한 분 목자요, 이 교회의 하나의 머리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서나 언약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교회만을 따릅니다.

교회의 보편성.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보편교회는 전체적이고 전세계 각지에 있으며 전 시대에 있었으며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C-9.40 (1967년 신앙고백서): 상기의 II.3. 참조.

G-1.0303: 상기 II, 전문 참조.

G-4.0200-.0203: 상기 제3장 전문 참조.

G-15.0101: 상기 제3장 전문 참조.

G-14.0405b (7), (9), G-14.0207g, i: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모범사례

- 목사가 노회에 찬성표로 지지한 다음, 당회에 대한 노회의 자금을 보류하도록 추천한다.
- + 전국 각지의 임시목사로 사역하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가 바뀔 때마다 노회 회원권을 변경하는데 이는 개체교회가 소재하는 노회에 대한 의무감을 높이고 노회와의 관계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함이다.
- + 은퇴 장로가 선교 자원자로 사역하며 3개월을 보낸다.
- + 장로가 개체교회들의 지역회의에서 노회를 대표하기로 동의한다.

III.2. 목회 동역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표시를 한다

참고문헌

고린도전서 12: 26-30: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 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 . .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상기 II.12. 참조.

C-6.18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룩한 성령의 거하심에 의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실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요, 따라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은 서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들을 거룩한 직책에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며, 교회의 모든 여타 제직원들을 그들의 특별한 사역에 자격을 부여하시고, 교인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십니다. 그는 말씀과 복음의 조례에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보존되고 증대되며 순화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임재 하에서 완전하게 거룩해집니다.”

G-14.0405b(5), G-14.0207e: 상기의 전문에 나와있는 안수서약 참조.

모범사례

- 몇몇 목사들이 동료 목사들과 경쟁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깎아내림으로써 노회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 + 노회 후원자들이 목사, 장로, 여타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서포트 그룹을 만든다.
- + 은퇴 목사들과 노회의 일반회원들이 때때로 설교 사역을 자원함으로써 각 교회의 위임목사들에게 주일예배 사역의 의무를 덜어준다.
- +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의 방향을 두고 동료 장로가 상심할 때 다른 장로가 시간을 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III.3.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회원을 모집하고, 기존의 교회관계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취약 상황을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출애굽기 20:17: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마태복음서 7:12: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C-7.256-.257:

“제146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입니다.

“제147문 제10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온전히 만족하는 것과, 이웃에 대하여는 전심으로 자애로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그의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G-4.0104: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 개체교회 제직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다. 개 교회의 정치와 지도권은 당회의 책임하에 있다. 개체 교회는 모든 백성을 섬기는 지역의 선교단위로서 전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모범사례

- 목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다른 교회 소속의 교인들을 심방하고 그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한 다음 자신의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한다.
- +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활동 중인 교인에게 소속 교회에서 리더쉽 자원 직책을 맡도록 격려한다.
- + 인근 지역에서 새 교회를 개발하는 문제를 노회와 협조하면서 당회를 리드하는 목사가 소규모로 조직되는 교회로 교인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주선한다.
- + 다른 교회의 동료목사가 휴가 중일 때 동료 교회의 교인 한 사람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그 교인이 자신의 교회로 이명하는데 관심을 보이면 이를 부드럽게 저지하고 그러한 요청에 대해 동료목사와 상의한다.

III.4. 세계 정의, 동정,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협동하고 타종교 전통의 성직자들과 연대하여 동역한다

참고문헌

마가서 6:8: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C-9.41-42 (1967년 신앙고백서): “선교하는 교회는 인간과 종교적 만남을 가지며 그 만남에서 교회가 종교로서 인간됨성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유대문화 내에 표현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 사람들의 종교를 뛰어넘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며, 유대정신과 헬레니즘 안에서 기독교 종교로 표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와는 별도로, 환경의 문화형태에 의해 역사 속에서 형상화 된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타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평행선을 찾으려 하며, 모든 종교에 대해 개방성과 존중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몇번이고 비기독교인들의 통찰력을 이용하여 교회 부흥을 제기하셨다. 그러나 복음의 화해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 그들의 종교를 불문하고, 설령 그들이 무종교인이라고 고백할 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C-9.46 (1967년 신앙고백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화해는, 중요한 세계 안에서의 빈곤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난한 자, 착취 당한 자들과 동일시 하셨으며 따라서 세계의 빈곤에 대한 대의는 그의 제자들의 대의이다. 교회는 빈곤이 부당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든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착취의 산물이든지, 국가자원의 부족에 의한 것이든지, 기술지식의 부재에서 온 것이든지, 혹은 급속한 인구팽창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 사람들이 가진 능력과 소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신 선물로서 기술의 열매를 사용하도록 소집해야 한다. 교회는 또한 인간 사회의 그러한 원동력이 개선된 생활조건을 바라는 인간의 소망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가난에 무관심한 교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교회, 특정 계급에만 문을 여는 교회, 또는 자선을 베풀고 보답을 기대하는 교회는 화해를 조소거리로 만들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G-3.0401:

“개방성으로 부름받음”

“a.

교회와 세상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근본적인 복종을 향하여, 또한 예배와 사역에서 더욱 기쁨에 찬 경배를 드리는 일에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b.

교회는 그 회원 됨에 있어서 다양한 신앙공동체임을 확인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남녀와 인종과 계층이 실제로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리고 새 인간성에 대한 가시적인 표적으로서의 포용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c.

교회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런 형태의 신실성과 유용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제도적 형태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

“d.

교회는 세상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교회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G-15.0104: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교단 및 세속 그룹들과 협력하고 행동을 같이 할 만한 수단과 목표가 존재할 때 대화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개방할 것이다.”

G-15.0105: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교단 및 세속 그룹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행동을 같이 할 기회를 개방할 것이다.”

W-7.4003: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폭력과 불의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 조성에 부름 받는다.

“a.

역사와 문화의 차이로 단편화되고 분리된 보편교회 안에서, 상호 불신에 의해 내적으로 양극화된 교단에서, 그리고 분열과 알력으로 병들어 있는 개 교회 안에서;

“b.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다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세상에서, 종교나 민족이나 이념의 열광적 행위가 폭력을 도발하는 세상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고 보존하려는 욕망이 폭동과 전쟁을 유발하는 세상에서;

“c.

범죄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 공동체 내에서, 잔악한 경쟁과 질서를 뒤집어 엮는 반동으로 점철된 학교와 일터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폭력으로 상처 입고 공포로 마비된 가족과 가정에서.

모범사례

- 목사가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사업과 성직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 장로가 타 크리스천 그룹이나 타종교 전통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발언은 한다.
- + 목사가 지역사회 경찰서에서 자원 목사로 순번을 수행한다.
- + 장로가 장로교회가 관련된 중동 선교사업에 참여하여 이슬람교도와 유대교 공동체 둘 다를 방문한다
- * 모범사례는 예증적으로 의도한 것이며, 전 사례를 총망라한 것이 아닙니다.
- ** 이러한 기준들은 오직 담임 목사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담임목사 기능을 이행하는 평신도 파송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 적절한 행동규범을 표시합니다.
- 부적절한 행동규범을 표시합니다.

출전약어 및 참고문헌:

신앙고백서: C

정치형태: G

예배모범: W

권징조례: D

성경번역—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NRSV)